안녕하십니까? 미한국상공회의소(KOCHAM) 사무국입니다.

아래 경제 기사 참고하시길 바랍니다.

[미국 경제
- Bloomberg: 7월 미 제조업 활동, 가장 빠른 상승세
- YahooFinance: 뉴욕 연은 총재 “물가 하락 예상…인플레 반등 시 대응하겠다”
- CNBC: 미 인플레 지표 중에 낮은 수치도 보인다
- YahooFinance: 미국인 1/3은 비상금이 전혀 없어

[미국 금융]
- Bloomberg: 미국이 엔화 약세 일본 돕는 이유는?
- ＷＳＪ 금값 상승세…선물가격 4,113.90달러

[중동전쟁]
- Bloomberg: 이란 “호르무즈 협상 진행 중이다”

[오일]
- CNBC: 트럼프의 이란 공격 철회로 오일 하락

[중국 경제]
- CNBC: 7 월 중국 미제조업 구매관리자 지수, 5개월만에 하락 전환

[비즈니스와 기업 동향]
- YahooFinance: AI 발전으로 Z세대 취업 선택 바뀐다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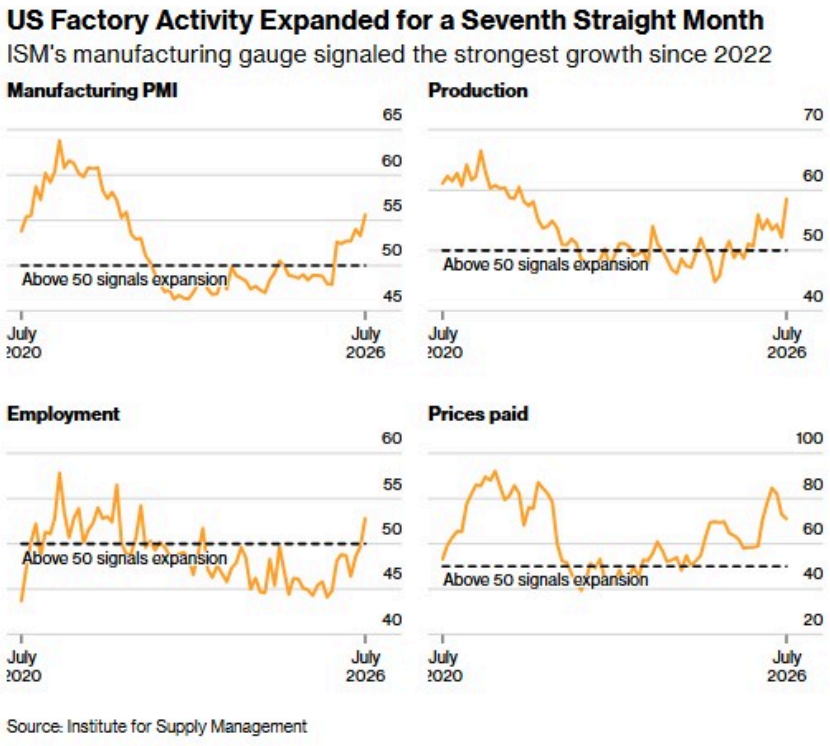
[경제 보고서]
- 한국은행 뉴욕사무소: 미 올해 2/4분기 GDP 성장율

[오늘의 금융 지표]
- 미 증시 지수, 미국 국채 금리와 주요 환율

[미국 경제]

Bloomberg: US Factory Activity Expands at Strongest Pace Since 2022
7월 미 제조업 활동, 가장 빠른 확장세

- 미국 7월 제조업 활동이 견조한 수요와 생산 급증, 고용 증가에 힘입어 4년여 만에 가장 빠른 증가세를 기록했다.
- 미 공급관리협회(ISM)가 발표한 7월 제조업 지수는 55.6을 기록하며 2022년 5월 이후 최고치를 나타냈다. 지수가 50을 웃돌면 경기 확장을 의미하며, 미 제조업은 현재 7개월 연속 확장세를 이어갔다.
- 생산 지수는 58.5로 2021년 말 이후 가장 높았고, 고용 지수도 2023년 9월 이후 처음으로 늘었다. 신규 주문 역시 호조를 보였다. 소비 심리 회복과 기업 투자, 정부의 국방 지출 증가가 올해 제조업 회복세를 이끌고 있다.



기사

YahooFinance: Exclusive-Fed's Williams expects inflation to ease, says Fed will act if it doesn't
뉴욕 연은 총재 "물가 하락 예상…인플레 반등 시 대응하겠다"

- 존 윌리엄스 뉴욕 연방준비은행 총재가 물가의 지속적인 하락세에 낙관론을 유지하면서도, 인플레가 반등할 경우 금리 인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.
- 그는 에너지 가격과 관세 인상 효과가 약화하면 디스인플레이션 흐름이 재개될 것으로 보았으며, 올해 하반기부터 물가가 내려가 2028년까지 목표치인 2%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했다.
- 다만 물가 압력이 완화되지 않을 경우 망설임 없이 추가 금리 인상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.

기사

CNBC: As Warsh's Fed faces pressure to act on inflation, these indicators show it's at its lowest in years
미 인플레 지표 중에 낮은 수치도 보인다

- 전통적인 지표들은 인플레가 연준의 목표치인 2%를 크게 웃도는 것으로 나타내고 있으나, 이른바 절사평균(Trimmed Mean) 지표들은 2020년대 초반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보였다.
- 절사평균 추정치는 물가 동향의 전반적인 흐름을 보다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소비자 물가지수 등을 산출 시 인플레 집계 항목(개별 상품 및 서비스 품목등) 중 최고치와 최저치 변동분을 제외한 지표다.
- 그러나 일각에서는 이것도 실제 물가 상황을 정확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.

기사

YahooFinance: How many Americans have no savings?
미국인 1/3은 비상금이 전혀 없어

- 미국인의 저축이 크게 부족한 수준이다. 2026년 기준 성인의 약 3분의 1은 비상금이 전혀 없는 상태이며, 이는 인플레, 높은 의료비, 고용 불안 등 구조적 요인이 크게 작용했기 때문이다.
- 미 금융서비스사인 Empower 조사 결과 32%가 비상금이 없다고 답했고, 야후 파이낸스 조사에서는 35%가 소득 중단 시 한 달도 버티지 못한다고 응답했다.
- 연준에 따르면 고교 미졸업자와 30세 미만(Z세대)의 저축액이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.

기사

[미국 금융]

Bloomberg: Why Japan Is Propping Up the Yen With US Help
미국이 엔화 약세 일본 돕는 이유는?

- 엔화 약세 원인은 미국 등 주요국과 큰 금리 차이로 인한 자금 유출이 주원인이다. 여기에 막대한 일반 국가 부채에 대한 우려와 중동 분쟁에 따른 유가 상승(수입 비용 증가)이라는 악재가 커졌다.
- 미국이 개입하는 이유는 엔저로 인해 일본 수출 기업이 가지는 불공정한 무역 이점을 막기 위함이다.
- 또한 일본이 엔화 방어를 위해 보유 중인 미국 국채를 대량으로 팔 경우, 미 국채 가격 폭락과 금리 급등으로 이어져 미국 경제가 타격을 입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.

기사

WSJ: Gold Rises As Middle East Diplomacy Hopes Push Oil Lower
금값 상승세…선물가격 4,113.90달러

- 금값이 상승세를 나타냈다. 뉴욕 금 선물 가격은 온스당 4,113.90달러로 0.2% 올랐고, 현물 금은 4,058.79달러로 0.4% 상승했다.
- 트럼프가 이란과 대화 시도하겠다는 소식에 유가가 하락하며 인플레이션과 금리 인상 우려가 누그러진 점 때문에 금값이 상승했다.
- 미·일 당국의 엔화 방어 공동 개입에 따른 달러화 약세도 금의 투자 매력을 높였다.
- 한편 시장은 이번 상승을 지정학적 위험보다 달러화 흐름과 노동 지표 등을 반영한 기술적 반등으로 보고 있다.

기사

[중동 전쟁]

Bloomberg: Iran Says Hormuz Talks Underway After Trump Calls Off Strikes

이란 "호르무즈 협상 진행 중이다"

- 트럼프가 이란에 대한 대규모 공격을 취소한 후,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의 선박 통항을 재개하기 위한 협상이 진전을 보인다고 밝혔다.
- 이란 외무장관은 오만과 진행 중인 호르무즈 해협 관리 논의가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, 이는 선박 안전을 위한 임시 경로 마련을 목적으로 한다고 설명했다.
- 트럼프도 해협 개방 협상이 타결에 가까워졌다고 언급했으나, 이란이 완전한 자유 통항을 허용할지 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.

기사

[오일]

CNBC: Oil prices tumble after Trump calls off attack on Iran
트럼프의 이란 공격 철회로 오일 하락

- 트럼프가 이란에 대한 공격 계획을 철회했다고 밝히면서 유가가 폭락했다.
- 서부텍사스산원유 선물은 6% 이상 하락한 배럴당 79.31달러를 기록했고, 브렌트유 선물은 약 5% 내린 배럴당 83.42달러에 거래됐다.
- 트럼프는 이란과 중동 국가들의 요청에 따라 공격을 취소했다며, 합의안에는 호르무즈 해협의 즉각적이고 완전한 개방과 이란의 핵 위협 종식이 포함될 것이라고 밝혔다.

기사

[중국 경제]

CNBC: China's factory activity unexpectedly contracts in July on demand slump, typhoons
7 월 중국 미제조업 구매관리자 지수, 5개월만에 하락 전환

- 중국의 7월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(PMI)가 49.2로 집계되며 5개월 만에 하락 전환했다.
- 이는 평가 기준선인 50은 물론 시장 전망치(50.0)를 밑돈 수치로 지난 2월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.
- 내수 침체와 태풍 영향 외에도 관세 인상 전 조기 출하(front-loading)가 약화된 것이 주원인으로 지적되며, 중국 정부의 내수 진작 압박도 한층 커졌다.

기사

[비즈니스와 기업 동향]

YahooFinance: As AI creates more entrepreneurs and a skills mismatch, Gen Z faces the choice of being a specialist or a 'general-purpose nerd'
AI 발전으로 Z세대 취업 선택 바뀐다

- 오늘날 미 청년층의 취업 전망은 시각에 따라 큰 기회이자 암울한 미래가 될 수 있다.

- AI 도입과 재택근무 확산으로 기업의 신입 일자리가 줄어들면서 젊은 층의 전통적인 커리어 출발이 막히고 있다. 반면 AI 인프라 구축 열풍 속에 숙련된 기술직 수요는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추세다.
- 또한 베이비부머 세대의 대거 퇴직으로 빈자리가 생겨나는 한편, 오랜 저출생의 영향으로 젊은 노동력 자체가 부족해지는 등 복합적인 변수들이 작용하고 있다.

기사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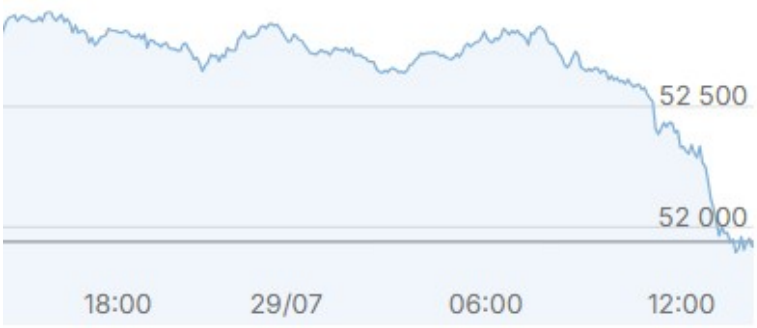
[경제 보고서]

한국은행 뉴욕사무소: 미 올해 2/4분기 GDP 성장율

뉴욕사무소가 자체 발간한 관련 보고서를 첨부합니다.

기사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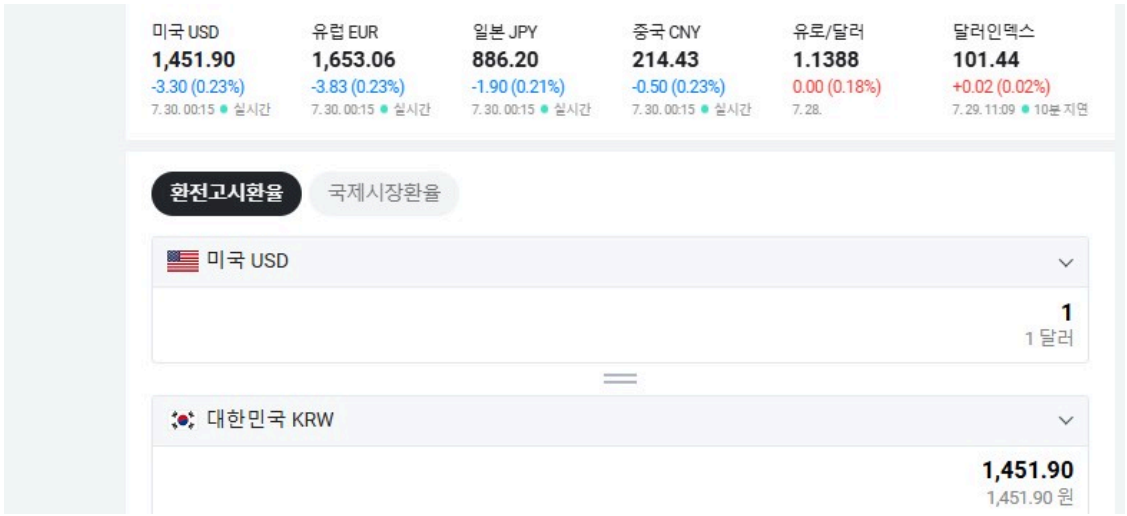
[오늘의 금융 지표: 미 증시 지수, 미 국채, 주요 환율]



US 30	51,935.60	-811.9	-1.54%
US 500	7,376.00	-53.2	-0.72%
Dow Jones	51,928.23	-819.09	-1.55%
S&P 500	7,376.04	-53.18	-0.72%
Nasdaq	24,647.14	-229.78	-0.92%
S&P 500 VIX	19.68	+1.47	+8.07%
Dollar Index	101.28	+0.014	+0.01%

U.S. Treasurys

	COUPON (%)	PRICE CHG	YIELD (%)	YIELD CHG
30-Year Bond	5	-3/32	5.115	0.023
10-Year Note	4.375	-24/32	4.640	0.029
7-Year Note	4.375	27/32	4.521	0.044
5-Year Note	4.375	-1/32	4.410	0.030
3-Year Note	4.125	-1/32	4.356	0.034
2-Year Note	4.25	-1/32	4.330	0.039
1-Year Bill	0	1/32	4.114	0.032
6-Month Bill	0	1/32	4.065	0.026
3-Month Bill	0	0/32	3.869	0.015
1-Month Bill	0	0/32	3.705	0.009



KOCHAM | 445 Park Ave | New York, NY 10022 US

Unsubscribe | Constant Contact Data Notice